

### <2018. 3. 24 시행 서울시 7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고대	8, 14, 19			1
중세	16	18		2
근세	3		9	7, 11
근대대동기	15			12, 17
근대개항기	5			
일제강점기	6, 10, 13			
현대	4, 20			

### < 총 평 >

2018년 서울시 7급 한국사는 작년과 비교하면 약간 쉬운 편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울시 7급답게 어렵게 출제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거의 등장한 적이 없는 낯선 선지들을 다수 포진시켜 채점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었다. 문항 유형은 **단순문답형 문제가 7개**, 자료제시형이 10문제, **순서나열형은 3문제**였다. 단순문답형 문제가 작년보다 2문제 줄어들었고 순서나열형 문제도 1문제 줄어들었으나, 자료제시형 문제가 3문제 늘어나서 대체적으로 **복고풍 경향과 최신 경향이 적절한 비율을 유지했다.**

시대사로는 근현대사에서 6문제 출제되었으며, **선사시대 문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전근대사에서는 고대사가 4문제·중세사가 3문제 출제된 반면, 근세사에서는 7문제를 출제해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대개 중세사에서 출제되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2문제, 문화사가 6문제** 출제되었으며, **경제·사회사는 2문제가 출제되었다.** 작년과 제작년과는 마찬가지로 경제·사회사의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은 4~6개정도 출제되었다. 그중 **고난도 문항으로는 고려 후기의 역사서를 물어본 2번 문제, 4번 문제가 있었다.** 변별력 있는 문항들의 공통점은 전부다 지금까지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낯선 선지들을 출제 하였다는 점이다.

###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고대 문화	자장	중
2	중세 문화	고려 후기 역사서	상
3	근세 정치	조선의 과거제도	중
4	현대 정치	1960~70년대 민주화 운동	상
5	근대 정치	항일 의병 운동	중
6	일제 정치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	중
7	근세 문화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	중하
8	고대 정치	장수왕(광개토대왕릉비)	중상
9	근세 사회	조선시대 노비	하
10	일제 정치	삼균주의	중하
11	근세 문화	이항	중하
12	근대 대동기 문화	실학자들	중
13	일제 정치	신간회	중하
14	고대 정치	진성여왕 대 정치 상황	중상
15	근대 대동기 정치	숙종 대 정치 상황	중
16	중세 정치	무신집권기 전반	중상
17	근대 대동기 문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하
18	중세 경제	고려의 경제 전반	중상
19	고대 정치	삼국의 통일 전쟁	중상
20	현대 정치	대한민국 수립 과정	중

### < 고난도 문항 분석 >

분류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고난도 문항	2	고려 후기 역사서	2015년에서도 서적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 되었는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였다. 특히 원부·허공이 편찬한 '고금록'은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전혀 다루지지 않은 서적인데 편찬시기를 물어 보았다. 해당 서적들의 편찬 연도는 '다시찾는 우리역사'에 모두 나와 있긴 하지만, 정답에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항이었다.
	4	민주화 운동	박정희 정부와 유신 집권기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의 순서를 묻는 문제로, 교린 시위 와 동아일보의 언론자유 수호 투쟁 등 다소 낯선 선지들을 제시하여 순서 배열을 어렵게 한 것이 특징이다.
변별력 있는 문항	8	광개토대왕릉비(장수왕)	관련 문제에서 흔히 나오던 광개토대왕릉비문이 아니라 광개토대왕릉비가 훼손된 과정을 보여주는 낯선 자료가 주어졌으며, 선지에서 복연의 왕 풍홍, 거란족 비려 등 생소한 단어들도 제시되어 난이도를 높인 문제이다.
	18	고려 경제	제시된 지문들이 낯설거나 헷갈리기 쉬운 것들로 배치되어 있었다. 철전과 동전을 확실히 구분해야 정답 선지를 제대로 고를 수 있었으며, 등피지 등 낯선 단어들도 제시되어 난이도를 높였다.

정답(B책형 기준)

1. ③	2. ③	3. ③	4. ④	5. ④
6. ④	7. ①	8. ①	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②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②	19. ③	20. ③

1.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신인(神人)이 말하였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으니 덕은 있지만 위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가) 가(이) 다시 물어보았다. 고국에 돌아가면 어떤 이로운 일을 해야합니까? 신인이 답했다. 황룡사의 호법룡(護法龍)은 나의 맡아들입니다. 범왕(梵王)의 명을 받고 가서 그 절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거든 절 안에 9층탑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이웃나라가 항복할 것이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업의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중략) 정관 17년 계묘 16일에 (가)는(은)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승복과 폐백 등을 가지고 와 탑을 세울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 ① 세속오계를 통해 당시 신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념을 가르쳤다.
- ② 대승불교의 두 흐름인 중관과 유식의 대립을 극복하며 화쟁을 주장하였다.
- ③ 대국통(大國統)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 ④ 질병 등 현실적 재난 구제에 치중하는 밀교를 전파하였다.

1. 자장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인물은 황룡사 9층 목탑의 설립을 건의한 자장임을 알 수 있다. ③ 자장은 선덕여왕 때 대국통으로 활약하며 승려들의 규범과 계율을 중시하는 계율종을 설파했다.

오답분석 : ① 원광, ②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④ 안홍, 명랑 등의 승려들에 의해서 밀교가 유포되었으나, 신라 하대에 들어와 유행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고대의 불교, 161~164쪽)

2. <보기>의 고려 후기 역사서를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 ㄱ. 민지의 『본조편년강목』
- ㄴ. 이제현의 『사략』
- ㄷ. 원부, 허공의 『고금록』
- ㄹ. 이승휴의 『제왕운기』

- ① ㄱ - ㄹ - ㄴ - ㄷ
- ② ㄹ - ㄱ - ㄴ - ㄷ
- ③ ㄷ - ㄹ - ㄱ - ㄴ
- ④ ㄹ - ㄷ - ㄱ - ㄴ

2. 고려 후기 역사서

정답 : ③

㉠ 원부와 허공이 편찬한 ‘고금록’은 충렬왕 때인 1284년에 편찬되었다. ㉡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충렬왕 때인 1287년에 편찬되었다. ㉢ 민지의 ‘본조편년강목’은 충숙왕 때인 1317년에 편찬되었다. ㉣ 이제현의 ‘사략’은 1357년에 편찬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고려 후기 역사서의 편찬, 306쪽)

3.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과인 생원과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 ② 생원과나 진사과의 초시에는 지역별 할당 인원을 정했지만, 문과와 경우는 지역 할당 없이 초시, 복시 모두 시험 성적순으로 뽑았다.
- ③ 『경국대전』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식,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 ④ 문과 합격자에게는 합격 증서에 해당하는 백패를 수여했다.

3. 조선의 과거제도

정답 : ③

③ 조선은 ‘경국대전’에서 탐관오리의 자식, 재가한 여자의 아들이나 손자, 서얼에게는 문과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오답분석 : ① 소과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문과에 응시하는 자격이 주어졌다. ② 문과의 첫 시험인 초시는 각 도의 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되었다. ④ 문과 합격자에게는 홍패가 수여되었다. 백패는 소과 합격자에게 주어진 합격 증서이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조선의 과거제도, 358~359쪽)

4. <보기>의 1960~70년대 전개된 민주화 운동을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 ㄱ. YH여성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 ㄴ.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ㄷ. 교련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 ㄹ.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 ① ㄴ - ㄱ - ㄷ - ㄹ
- ② ㄴ - ㄱ - ㄹ - ㄷ
- ③ ㄴ - ㄷ - ㄱ - ㄹ
- ④ ㄴ - ㄷ - ㄹ - ㄱ

4. 1960~70년대 민주화 운동

정답 : ④

㉠ 삼선개헌은 1969년에 단행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같은 해에 전개되었다. ㉡ 교련이란 일반 학생들에게 군사와 관련된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1969년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도발로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지속되자 박정희 정부는 교련을 대학교와 고교 등에 일반 과목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대학교는 1971년 4월부터 대대적으로 반대 시위를 전개했는데 박정희 정부는 10월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이를 강제로 탄압했다. ㉢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은 1971년 ‘언론 자유 수호 선언’의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농성 시위를 한 것은 1979년의 일이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911쪽 / 유신 체제의 붕괴, 914쪽 / 현대의 언론 활동의 발달, 964쪽)

5. <보기>의 글이 발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민족운동은?

<보기>  
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하는 사람은 살아 나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 ① 지금 의의 깃발을 치켜들고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 ②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 ③ 오늘 병사를 일으키려는 것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 ④ 충남 정산에서 전 참관 민중식이 의병을 일으켰다.

5. 국권 피탈기의 항일 의병 운동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민영환이 자결 직전에 발표한 유서이다. ④ 을사의병 때 전 참관 민중식이 충남 정산에서 거병하여 홍주성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오답분석: ① 제1차 동학 농민 운동 때 발표된 격문의 일부이다. ② 시위 연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 1907년 정미조약의 체결 이후 자결할 때 발표한 유서의 일부이다. ③ 을미사변 이후 발생한 을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병장 민용호가 발표한 유럽 통문의 일부이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645쪽 / 항일 의병 운동 673~677쪽)

6.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하여 전개된 다음의 민족운동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 ①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국무령을 채택하였다.
- ② 경성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아사동맹 을 맺으며 파업 하였다.
- ③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저술하였다.
- ④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의 행차에 폭탄을 던졌다.

6. 일제 강점기의 독립 운동 정답 : ④

④ 이봉창의 폭탄 의거는 1932년의 사실이다.

오답분석 : ① 임시정부에서 국무령제가 채택된 것은 1925년의 사실이다. ② ‘아사동맹’이란 1923년 경성 고무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대하여 일으킨 노동 쟁의를 가리킨다. ③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에 발표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대한민국 임시 정부, 781쪽 / 의열단, 789쪽 / 한인 애국단, 791쪽)

7. <보기 1>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1402년(태종 2)에 의정부 정승 이무와 김사형이 발의하여 이회가 제작하고, 권근이 발문을 쓴 세계지도이다.

<보기 2>  
ㄱ. 원나라 세계지도를 참고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ㄴ.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위치하였고, 중국과 한국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  
ㄷ.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지도에 빠져 있다.  
ㄹ. 후대의 모사본 가운데 하나를 일본 류코쿠대학이 소장하고 있다.  
ㅁ. 지도 제작에 참여한 이회는 이보다 앞서 『동국지도』도 만든 바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7.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정답 : ①

<보기 1>에서 설명하는 지도는 태종 때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원나라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해 만든 지도로, 지도에 중심에는 중국이 그려져 있는데 중국과 한국은 원래 크기보다 과장해서 그려진 특징이다. 이 지도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후대에 그린 모사본 중 하나가 일본 류코쿠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오답분석 :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려져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이 빠져 있다. ㉣ ‘동국지도’는 세종 때 양성지에 의해 제작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지도·지리서의 편찬, 439쪽)

8. <보기>의 (가)가 건립된 왕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일찍이 (가)를 구경하기 위해 집안현에 이르러 여관에서 만주인 영자평이란 소년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는데, (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가)가 오랫동안 초래(草萊)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 지방 영희(英禧)에 의해 발견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 가운데 고구려가 중국 토지를 침탈 했다는 자구들이 들어 있었으므로, 중국인들이 그것을 칼과 도끼로 쪼아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인들이 (가)를(을)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탁본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닳아 없어지거나 이지러진 부분을 석회로 때어 발랐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인식할 수 없었던 자구가 도리어 생겨나 참된 사실은 삭제되고 위조된 사실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 ① 북연(北燕) 왕인 풍홍을 둘러싸고 북위 및 송과 갈등을 빚었다.
- ② 거란족 비려의 3개 부락을 격파하고 소·말·양을 노획하였다.
- ③ 당나라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도교의 일파인 오두미도(五斗米道)도 유입되었다.
- ④ 이문진에게 명하여 『유기』를 『신집』 5권으로 개수하였다.

8. 광개토대왕릉비(장수왕)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가 저술한 '조선상고사'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본인과 중국인 학자들이 광개토대왕릉비를 훼손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한 장수왕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된다. ① 북연은 북위의 공격을 받아 멸망할 위기에 놓이자, 왕 풍홍이 고구려 장수왕에게 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풍홍이 교만한 행동을 벌이자 장수왕은 풍홍의 태자를 인질로 잡는 등 견제책을 펼쳤는데, 그러자 풍홍은 다시 중국 송에 망명을 요청했다. 이를 보고받은 장수왕이 풍홍을 살해하자 송의 군대가 고구려를 치는 등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고구려와의 갈등을 원치 않았던 송이 대립관계를 풀게 되면서 갈등은 해소되었다.

오답분석 : ②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이다. ③ 7세기 영류왕 때 당나라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들어왔다. ④ 영양왕에 대한 설명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고구려의 전성기 83~84쪽 / 도교와 풍수지리설 165쪽 / 역사서의 편찬 169쪽)

9. <보기>의 (갑)은 조선시대 신분층에 대한 설명이다. (갑)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무릇 (갑)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사로이 몰래 사고 팔았을 때는 관청에서 (갑)과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값이 저화 4천 장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천 장이다.

- 『경국대전』

- ①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 ② 부모 모두가 (갑)일 경우에만 그 자녀도 (갑) 신분이 되었다.
- ③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며 신공(身貢)을 바치기도 했다.
- ④ 국가에 소속된 경우 관청의 잡무 처리와 물품 제작에 참여했다.

9. 조선시대 노비

정답 : ②

제시된 <보기>의 (갑)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통해 노비임을 알 수 있다. ② 조선 시대의 노비는 초기에는 부모 중 한 쪽만 노비여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칙을 적용받았으며, 이후 여러 번 변화를 겪다가 영조 때 이르러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하는 노비종모법이 시행되었다. 부모 모두가 노비여야 자식도 노비가 되도록 하는 법은 조선은 물론 고려시대에도 시행된 적이 없다.

오답분석 : ①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 등의 대상이 되었다. ③ 사노비 중 외거노비에 대한 설명이다. ④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에 대한 설명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고려의 신분 제도 - 천민 275쪽 / 조선의 신분 제도 - 천민 410쪽 / 노비 신분의 변화, 526쪽)

10.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국 사상가 쑨원(孫文)의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 ②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 ③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였다.
- ④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을 반대하였다.

10. 삼균주의

정답 : ③

③ 조소앙의 삼균주의에서는 개인간의 균등을 강조하면서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를 주장했다.

오답분석 : ①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쑨원이 제창한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② 삼균주의에서 삼균(三均)이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의미한다. ④ 삼균주의는 식민주의 정책과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반대했다.

(2018 해법국사 2권, 삼균주의, 805쪽)

11. <보기>와 같은 사상 체계를 지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내세워 이(理)는 착하고 보편적이지만, 기(氣)는 착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어 비천한 것으로 보았다.
- 4단(四端)은 이에서 발생하고, 7정(七情)은 기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 ① 주자의 서찰을 뽑아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여 일본 주자학 발달에 기여하였다.
- ② 선배학자 이언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설(主理說)을 수립하였다.
- ③ 유성룡, 김성일, 정구, 장현광 등 영남학자들에게 학설이 계승되었다.
- ④ 국왕과 선비가 지켜야 할 왕도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집요』를 지었다.

11. 이황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이황이 주장한 내용들이다. ④ '성학집요'는 이이가 저술하였다.

오답분석 : ① 이황은 주자의 '주자대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였다. ② 이황은 선배학자 이언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설을 수립하였다. ③ 이황의 학설은 유성룡, 김성일, 정구, 장현광 등 영남학자들에게 계승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성리학의 융성, 455~457쪽)

12. 정치적 입장이 노론이었던 학자가 쓴 책의 주요 내용을 바르게 소개한 것은?

- ① 실용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고정관념을 상대적 논법으로 비판했다.
- ② 부안 우반동에서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전제와 토지 재분배를 주장했다.
- ③ 침성촌에 은거하면서 견문한 내용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저술했다.
- ④ 야사 400여 종을 참고해 조선정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했다.

**12. 조선 후기의 실학자(노론)**

정답 : ①

① 노론파에 속한 북학사상의 선구자인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실용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지금까지 믿어온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오답분석 :** ② 남인 실학자인 유형원은 부안 우반동에서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전제 등에 의한 토지 재분배를 주장하였다. ③ 이익은 광주 침성촌에서 일평생 학문에 전념하고 많은 학자를 길러냈으며, '성호사설'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 및 비판하였다. 그는 북인에서 전향한 남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형이 당쟁으로 희생되는 것을 보고 벼슬길을 단념하였다. ④ 이규익은 '연려실기술'에서 400여종의 야사를 참고하여 조선 왕조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하였다. 그는 실각한 소론 집안의 자제로 벼슬을 포기하고, 평생 학문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564쪽 / 국학 연구의 확대, 568쪽)

13. <보기>의 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보기>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 ② 농촌진흥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 ③ 자치운동의 확산을 경계하였다.
- ④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동의를 얻었다.

**13. 신간회**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신간회의 강령이다. ② 농촌진흥 운동은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인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추진된 것으로, 신간회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분석 :** ①③④ 신간회의 등장 배경으로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자치 운동의 전개,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대한 경계, 6·10 만세 운동으로 인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연대 가능성 형성 등이 있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1930년대 이후의 일제의 경제 수탈, 760쪽 / 민족 유입당 운동, 831~832쪽)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도적들이 나라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 그들은 바지를 붉게 물들여 스스로 남들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고 적(赤袴賊)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서울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 ① 대구화상이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②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다.
- ③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바쳤다.
- ④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14. 신라 하대의 상황**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896년(진성여왕 10)에 신라 서남지역에서 일어났던 농민봉기인 적고적의 난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농민봉기들은 지배층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으며 통치 질서의 문란을 수습할 수 없었던 진성여왕은 이듬해 6월 왕위를 태자 요(효공왕)에게 주고 물러난다. ④ 궁예는 효공왕 때(901년)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오답분석 :** ① 888년(진성여왕 2) 각간 위홍이 승려 대구와 함께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② 889년(진성여왕 3) 사벌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다. ③ 894년(진성여왕 8) 최치원은 중앙과 지방 관직을 역임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개혁의 방안을 제시한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해법국사 1권, 통일신라의 발전과 쇠락, 105쪽 / 회화글씨문학음악, 181쪽)

15. <보기>의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왕대의 일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보기>

후궁이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으며,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

- ①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 충돌이 일어나자, 청의 요구에 따라 수백 명의 조총부대를 영고담(지금의 지린성)에 파견하였다.
- ② 병조판서 김석주의 건의에 따라 국왕 호위와 수도 방위의 핵심 군영 중 하나인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 ③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출몰하는 왜인을 쫓아내고 일본 당국과 담판하여 그곳이 우리의 영토임을 승인받았다.
- ④ 삼남지방에 대한 양전사업이 완료되었고, 세종 때 설치했다가 폐지한 폐사군의 일부를 복설하였다.

15. 조선 숙종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조선 숙종 때 기사환국에 대한 내용이다. ① 효종 때 나선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청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조종 부대를 파병하였다.

오답분석 : ② 금위영은 숙종 때 설치되었다. ③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④ 숙종 때 세종 때 설치했다가 폐지한 폐사군의 일부를 복설하여 압록강 연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숙종 말년에는 삼남지방에서 양전사업이 완료되었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북벌론과 나선정벌, 377쪽 / 군사제도의 변화, 474쪽 / 일본과의 관계, 489쪽)

16. 고려 무신정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위충은 의종 복위를 내세우며 집권 무신을 타도하고자 했다.
- ② 산발적이던 민란은 김사미, 효심의 봉기를 계기로 연대하였다.
- ③ 최충헌은 명종을 폐하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을 차례로 세웠다.
- ④ 최이의 처가 죽자 왕후처럼 장례를 치렀다.

16. 고려의 무신 정권

정답 : ①

① 의종의 복위를 내세우며 집권 무신을 타도하고자 한 인물은 김보당이다. 동북면의 병마사 김보당은 의종의 복위를 위해 난을 일으켰다. 조위충은 의종의 복위가 아니라 정중부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오답분석 : ② 김사미와 효심의 봉기는 이 시기 경상남도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 봉기로, 다른 지역 세력과 연합하여 확장되면서 다른 지역과도 연계 가능성을 보여 줬다. ③ 최충헌은 명종을 폐위시키고, 신종·희종·강종·고종 등을 차례로 왕으로 세웠다. ④ 최이(최우)는 본인의 처가 죽자 왕후처럼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2017년 해법국사 1권, 무신 정변, 228쪽 / 무신 집권기의 사회 동요, 229쪽)

17. 2018년 현재까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이 아닌 기록물은?

- ①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일지 형식으로 쓴 기록
- ②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기록한 기행문
- ③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관각한 책판
- ④ 조선왕실 주요 행사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을 넣은 책

17.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정답 : ②

②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오답분석 : 2018년 현재까지 등재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역계,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 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국채보상 운동 기록물, 조선 통신사에 대한 기록물,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이 있다.

(2018년 해법국사 2권 해법 더하기, 한국의 세계 유산, 21~22쪽)

18. 고려시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종이는 질기고 반질거려 등피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 ② 삼한통보, 해동중보, 건원중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사용했다.
- ③ 개경, 서경에 상설 점포인 시전이 있었다.
- ④ 서리, 향리, 군인, 악공은 수조지를 받았다.

18. 고려시대의 경제

정답 : ②

② 건원중보는 철로 만든 최초의 철전이다. 고려시대에는 삼한통보, 해동중보 등의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오답분석 : ① 고려의 종이는 가죽처럼 질겨 등피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고려의 종이 질기고 얇아 가치가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③ 고려시대에는 개경, 서경 등 대도시에는 상설점포인 시전이 형성되어 있었다. ④ 서리는 15~18과에 속해 17~25결을 지급받았으며 향리는 외역전, 군인은 군인전, 악공은 별정전을 지급받았다.

(2018 해법국사 1권,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260쪽 / 화폐 주조와 보의 발달, 262쪽 / 상업 활동, 268쪽)

19. <보기 1>과 <보기 2>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7월 9일 김유신 등이 황산 들판으로 진군하였다. 백제 장군 계백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세군데에 진을 치고 기다렸다. 유신 등이 병사를 세 길로 나누어 네 번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장수와 병졸들의 힘이 다하자, 장군 흡승이 아들 반굴에게 말하였다. 신하에게는 충성만 한 것이 없고, 자식에게는 효도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두 가지를 다하게 된다. 반굴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곧장 적진에 뛰어들어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

<보기 2>

고구려 대신 연정토(淵淨土)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연정토 및 함께 온 관리 24명에게 의복과 식량과 집을 주고 서울과 주(州)·부(府)에 안주시켰다. 12성 중 8성은 온전했으므로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하였다.

- ①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 ② 김춘추가 당에 가서 백제 정벌을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 했다.
- ③ 당이 신라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 ④ 검모잠이 안승을 받들고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다.

19. 삼국 통일 과정

정답 : ③

(가)는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나)는 666년 고구려 멸망 직전에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가 신라에 투항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③ 당나라는 663년 신라에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 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하여 신라 영토까지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냈다.

오답분석 : ① 연개소문은 642년 자신을 해치려 한 영류왕과 반대파를 제거하고 보장왕을 옹립한 다음 스스로 막리지에 올라 정권을 장악하였다. ② 648년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함께 백제를 정벌한 다음 고구려를 남북으로 협공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나·당 연합이 결성되었다. ④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에 전개된 고구려 부흥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2018년 해법국사 1권, 고구려와 수·당 전쟁, 95쪽 / 나·당 연합군의 결성과 백제, 고구려의 멸망, 96~97쪽 / 나·당 전쟁과 신라의 통일, 98쪽)

20. <보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 ㄱ.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상들이 회의하였다.
- ㄴ. 제주도 파병과 정부에 반대하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 ㄷ.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 ㄹ. 좌우의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ㅁ. 평양에서 남북의 정치,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모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ㄷ - ㄹ - ㅁ - ㄴ
- ③ ㄱ - ㄹ - ㅁ - ㄴ - ㄷ                      ④ ㄱ - ㅁ - ㄴ - ㄷ - ㄹ

20. 정부 수립 과정

정답 : ③

㉠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였다. ㉡ 1946년~47년까지 전개된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 1948년 4월에 전개된 남북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수, 순천 10·19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 김구는 1949년 경교장에서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2018 해법국사 2권, 좌우 대립과 좌우 합작 운동, 877쪽~880쪽 / 단독 정부 수립 결정과 반대, 882~883쪽)